

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9.03.17

토마스 샤이비츠, '더블 스타' Thomas Scheibitz, 'Doppelstern (Double Star)'



AUF의 초상, 2018, 캔버스에 유채, 비닐,
피그먼트 마커, 140x190 cm

© Thomas Scheibitz / VG Bild-Kunst, Bonn
2019, Photo: Gunter Lepkowski, Courtesy
Sprüth Magers

전시개요

전 시 명 : 더블 스타 Doppelstern (Double Star)

작 가 명 : 토마스 샤이비츠 Thomas Scheibitz

전시기간 : 2019년 3월 21일(목) – 2019년 5월 5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청담

출 품 작 : 평면 및 입체 13점

담당 및 문의

이지선 jen.lee@hakgojae.com

+822-3448-4575~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90321-20190505 토마스 샤이비츠 더블
스타 展'

1. 전시개요

학고재청담은 2019년 3월 21일(목)부터 5월 5일(일)까지 토마스 샤이비츠(Thomas Scheibitz, b. 1968, 독일 라데부르크) 개인전 《더블 스타 Doppelstern (Double Star)》를 연다. 토마스 샤이비츠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회화가이자 조각가이다. 2005년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티노 세갈(Tino Sehgal, b. 1976, 런던)과 함께 독일관 대표 작가로 참여한 뒤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샤이비츠는 전통적인 회화, 건축, 도시 풍경, 그리고 대중문화 속 이미지를 차용하고 해체해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조립한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추상과 구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평면 및 입체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고재청담은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샤이비츠의 근작 중 평면 및 입체 작업 13점을 엄선했다. 이번 전시는 토마스 샤이비츠 작가의 국내 최초 개인전이다. 추상과 구상 간의 경계 흐리기에 골몰해온 작가가 제시하는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인식 제안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토마스 샤이비츠 작가는 1968년 독일 라데베르크에서 태어났다. 독일 드레스덴 조형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로 석사학위를 받고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에서 회화 및 조소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7년 독일 드레스덴의 레만 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 미술관(2018)과 영국의 발틱 현대미술센터(2013),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2012), 아일랜드 현대미술관(2007)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2016),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2012), 독일의 피나코텍 국제현대미술관(2012),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2012)와 팔레 드 도쿄(2012), 그리고 2005년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다. 주요 소장처로는 테이트 모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국제현대미술관,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카네기 미술관과 퐁피두 센터 등이 있다. 현재 토마스 샤이비츠 작가는 베를린에서 거주하면서 작업중이다.

2. 전시 주제: 두 개의 별

전시 제목 '더블 스타(Doppelstern, Double Star)'는 토마스 샤이비츠 작가가 직접 붙인 것이다. 작가에 따르면 '두 개의 별'은 작가가 주로 활동해온 유럽과, 이번에 최초로 방문하는 한국이라는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리키는 말로, 작가가 생애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 건네는 인사이다. 그리고 별은 이번 전시에 포함된 회화 작품을 비롯하여 샤이비츠의 작업에서 종종 눈에 띄는 모티프이기도 하다. 샤이비츠는 그동안 평면과 입체 작업을 통해 구상과 추상, 회화와 조각 등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 구상과 추상

토마스 샤이비츠의 작업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상과 추상 간의 경계를 흐린 뒤 마침내 이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샤이비츠의 작업은 일견 추상처럼 보이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 샤이비츠는 미술사 속 잘 알려진 작품은 물론, 광고, 건축, 풍경, 카툰, 대중문화, 영화 세트나 연극 무대 등을 포함한 방대한 범위의 시각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를 만든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료들을 분류해 색인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이미지들을 차용해 캔버스에 재구성한다. 관람객들은 샤이비츠 작품 속에서 작가가 모은 레퍼런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2019)에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얼굴이나, <모노그램

(릴리프)>(2017)에서 보이는 알파벳 'T'자를 닮은 형상 등이 그것이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는 샤이비츠의 작업이 전통적인 추상 작업에 속하는지, 혹은 구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작가는 다양한 시각 정보를 수집해 원래의 맥락에서 해체하고 차용해, 자신만의 작업 언어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화면을 구성한다. 작가가 이러한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작가로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그 불가능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작가는 구체적인 형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작업에 독이 된다고도 본다. 관련하여 샤이비츠는 자신의 작업이 “단축화, 단순화, 그리고 명확화(Shortening, simplifying, and clarifying)”의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샤이비츠는 추상과 형상 간의 전통적인 구분은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구분 짓기는 1920년대에는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상투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각 정보는 서로 다른 곳에서 수집되었다 할지라도 비슷해 보이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거나, 거리를 걸으며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장면들, 혹은 사진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아주 넓은 범위의 풍경 등은 전혀 다른 이미지이지만 시각적인 측면에서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엄연히 구상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추상적인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주를 찍은 사진은 구체적인 형상을 담은 것이지만 추상적인 이미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2. 평면과 입체

토마스 샤이비츠는 회화가이면서 조각가이기도 하다. 본 전시는 부조를 포함해 총 3점의 입체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샤이비츠의 회화는 독특한 공간감을 자랑한다. 그의 회화 속에서 보이는 모티프들은 수수께끼 같은 시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형태가 공간감 없이 겹쳐 있기도 하고, 실제 3차원의 세계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형상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작곡가>(2019)는 마치 현실화될 수 없는 펜로즈 계단(Penrose stairs)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형상뿐 아니라 붓 터치의 질감을 달리함으로써 공간이나 깊이를 암시하기도 한다.

샤이비츠의 입체 작업은 평면 회화를 접거나 이어 붙여 만든 공예품과 같이 보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작가가 조각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서 르네상스의 전통을 깨고 조각에 채색을 하는 사례는 많아졌으나, 샤이비츠와 같이 회화가이면서 조각 위에 자신의 회화 속 조형 요소를 그대로 입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작가는 그의 평면 작업에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체 작업에도 뚜렷한 아우트라인을 그려 면을 분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은 깎아 만든 조각이 아닌, 속이 비어 있는 조립 작업이다. 그 때문에 샤이비츠의 조각은 입체적인 회화 작품, 혹은 회화의 옷을 입은 조각처럼 보인다. 관련하여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작가는 “나의 회화란 조각보다 깊은 공간감을 보여 주는 조각의 평평한 형태”라고 언급하였다.¹

샤이비츠는 평면 작업은 작가에게 보다 많은 표현의 자유를 선사하지만 필요에 따라 입체 작업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작가는 이와 같은 불가능한 공간을 그린 회화와, 회화성이 짙은 조각 작품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의 구분을 해체하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형식 융합에의 시도는 마치 추상화와 구상화의 경계를 흐리려는 시도와 공통점을 가진다.

토마스 샤이비츠는 이처럼 구상과 추상, 그리고 평면과 입체 등 미술사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형식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규범에 의문을 표시하고, 인식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려고 한다. 항상 새로운 작업을 새로운 생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작가는 작업을 통해 전통 미술 형식의 해체와 이미지의 차용 및 자의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토마스 샤이비츠 작가의 작업은 갈수록 매체가 다양해져 가는 동시대 미술 속에서 가장 전통적인 형식인 회화와 조각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3. 주요작품

*작품이미지 사용 시 각 작가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파스빈더의 초상, 2019, 캔버스에 유채, 비닐, 피그먼트 마커, 150x190cm

© Thomas Scheibitz / VG Bild-Kunst, Bonn 2019,
Photo: Gunter Lepkowski, Courtesy Sprüth Magers

이 작품은 스크린처럼 네모난 머리를 한 어느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이 한쪽 방향으로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의 제목 '파스빈더의 초상' 중 '파스빈더'는 독일 영화의 원동력이었으며, 야수처럼 맹렬하게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영화감독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Rainer Werner Fassbinder, 1945-1982)를 가리킨다. 생전 파스빈더 감독을 본 적이 있거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가 배우를 자신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먹잇감'으로 알고 있다며 파스빈더 감독을 야생동물에 비유했다.

¹ Art Basel Salon, Thomas Scheibitz and Martin Eder: Figuration and Abstraction, June 14, 2012

Hakgojae

Cheongda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1, B1 (청담동 109-20)

B1, 41, Dosan-daero 89-gil, Gangnam-gu, Seoul, 06012,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AUF의 초상, 2018, 캔버스에 유채, 비닐, 피그먼트 마커, 140x90cm

© Thomas Scheibitz / VG Bild-Kunst, Bonn 2019,
Photo: Gunter Lepkowski, Courtesy Sprüth Magers

캔버스 위에 뚜렷하게 보이는 하트 모양 기호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가 친구들이 조성한 밴드 'AUF'를 위해 디자인했던 앨범 커버와 관련이 있다. 해당 앨범 커버는 파기되었다고 한다.



캐피탈 VI, 2019, 판, 판지 마운팅, 비닐과 아크릴릭, 247x11.5cm

© Thomas Scheibitz / VG Bild-Kunst, Bonn 2019,
Photo: Gunter Lepkowski, Courtesy Sprüth Magers

이 작품은 속이 텅 빈 조각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샤이비츠 특유의 '입체 회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작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상징적인 문제로서의 자본, 소유나 재산 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낸다. 속이 텅 비어 있는 이 작품은 예술적인 주관과 허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Hakgo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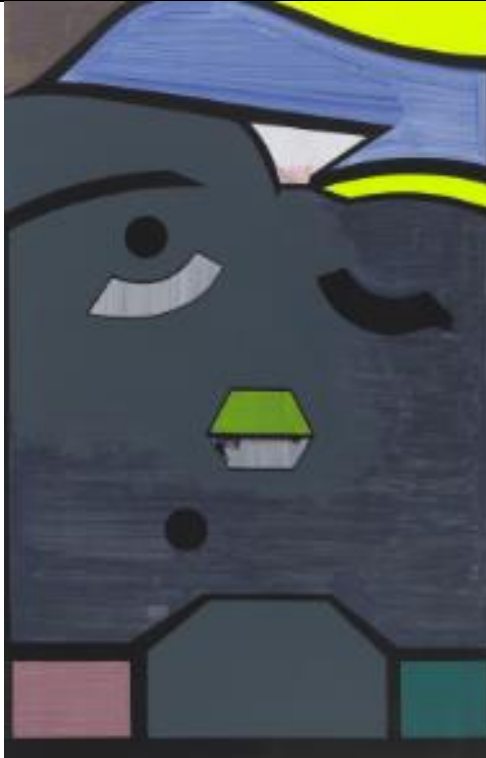
Cheongda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1, B1 (청담동 109-20)

B1, 41, Dosan-daero 89-gil, Gangnam-gu, Seoul, 06012,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바이러스, 2019, 면 혼방 원단에 유채, 비닐, 피그먼트 마커, 140x90cm

© Thomas Scheibitz / VG Bild-Kunst, Bonn 2019,

Photo: Gunter Lepkowski, Courtesy Sprüth Magers

작가는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이 주로 '초상화'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누군가의 초상화일 수도 있고,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초상화일 수도 있다. 의학 용어인 '바이러스'를 딴 제목을 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어렴풋이 누군가의 얼굴이 보인다. 혹은, 작가가 차용한 이미지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형상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모티프가 된 것은 어느 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 광고라고 밝혔다.

5. 전시 서문

*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샤이비츠

스프루스 마거스 (SPRÜTH MAGERS)

토마스 샤이비츠는 회화와 조각, 그리고 드로잉 작업에서 자신만의 회화 언어 속으로 추상과 형상 간의 경계를 허물며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가 공부했던 도시인 드레스덴에 위치한 아주 넓은 작업실은 작가로 하여금 다양한 범위의 대상을 한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샤이비츠 작업의 근간을 이룬다. 그는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 사진, 매너리즘 경향의 판화, 잡지 스크랩 등으로 이루어진 아카이브를 추적해왔다. 완전히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 것의 불가능성은 그의 작업의 주요 골자다. 그는 이렇게 모은 이미지를 고르고 재배열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시각 언어를 창조해낸다. 그 결과,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각각의 구도에 들어맞을 수 있는 작업과 방식의 무한한 코드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샤이비츠는 그의 이미지 소스를 색인화하는 것을 넘어 그의 아카이브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제작 과정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작가로 하여금 작업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최종 작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토마스 샤이비츠의 작업은 시각과 언어 간의 상호 관계에 집중한다. 그는 건축의 요소, 풍경, 그리고 문장(紋章)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미디어, 광고, 만화, 그리고 또한 연극과 영화 세트에서 모티프를 가져온다. 샤이비츠는 이러한 대규모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하는 형식 언어를 개발했으며, 이를 작업을 위한 변환 가능한 구조물로 활용한다. 현실과 관련된 기억이나 의혹은 언제나 그의 여러 작품에서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고, 더 이상 전통적인 서술과 분류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의 주요 주제는 개인의 현실과의 관계와 그것이 시각적인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이다. 이름, 구호, 문학적 표현 및 미술사와 대중문화 분야에서 개발된 용어로부터 구성된 그의 작품 제목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복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작품 제목이 내용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곧, 작품 제목은 언어 기호의 변화하는 의미, 다른 문맥으로의 이동, 그리고 원문 이미지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다. 샤이비츠는 건축 용어 등 미술사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방식을 이용해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는 물론, 로고와 픽토그램, 그리고 이니셜 등의 구조를 연구한다. 그는 시각적 기호와 동시대적 상징들을 뒤틀린 표면과 배경과 전경을 겹침으로써 깊어지는 구조적으로 그려진 공간으로 통합한다.

토마스 샤이비츠(Thomas Scheibitz, b. 1968, 독일 라데베르크)은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18년 킨들 현대미술센터(베를린), 본 미술관(독일 본), 2014년 스프루스

Hakgojae

Cheongda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1, B1 (청담동 109-20)

B1, 41, Dosan-daero 89-gil, Gangnam-gu, Seoul, 06012,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마거스(베를린), 2013년 발틱 현대미술센터(영국 게이츠헤드), 2012년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2011년 콜레치오네 마라모티(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2010년 상파울루 미술관(브라질 상파울루), 2006년 캄든 아트 센터(런던), 2008년 무담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스프루스 마거스(베를린), 2007년 아일랜드 현대미술관(더블린), 그리고 2001년 빈터투어 미술관(스위스 빈터투어)이 있다. 최근 진행한 단체전으로는 2018년 광둥예술박물관(중국 광저우), 웨스너 시각예술센터(미국 콜럼버스), 2016년 라트비아 국립미술관(리가), 2015년 다이치토르할렌(독일 함부르크), 그리고 2013년 세인트루이스 미술관(미국 세인트루이스)이 있다. 또한, 2005년 제 51회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한 바 있다.

6. 작가 이력

1968 독일 라데베르크 출생
 1996 독일 드레스덴 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 학사 졸업
 1996 독일 드레스덴 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 석사 졸업
 현재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회화 및 조소과 교수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9 더블 스타, 학교재청담, 서울

- 2018 고원의 반 인물, 킨들 현대미술센터, 베를린
 눈 속의 사냥꾼, 스프루스 마거스, 로스앤젤레스, 미국
 마스터플랜/ 시네마, 본 미술관, 본, 독일
 마스터플랜/ 시네마 (토마스 샤이비츠 기획), 빌헬름 학 미술관, 루트비히스하펜, 독일
- 2017 예칭 / 그라비아 사진, 닐스 보르흐 옌센 갤러리 & 에디션, 베를린
- 2016 사우라거 9.44, 부호 물러, 베를린
- 2015 15.92 x 16, 파라 & 로메로, 마드리드
- 2014 라디오픽처스, 스프루스 마거스, 베를린
 상상 스튜디오,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 2013 원-타임 패드, 발틱 현대미술센터, 게이트헤드, 영국
 *360, 032c, 베를린
- 2012 원-타임 패드 (토마스 샤이비츠 기획 참여),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베이직 이벤트의 파노라마 뷰,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 2011 mk/울트라, 스프루스 마거스, 베를린
 하나의 혈통/정물 & 통계, 알라 파틸라가, 베를린
 강과 근원, 콜레치오네 마라모티, 레지오 에밀리아, 이탈리아
 두 번째를 위한 세 가지, 파라 & 로메로, 마드리드
- 2010 움직이는 플랜 B - 챕터 투, 스프루스 마거스, 런던
 어수선한 공간, 탁시스팔레 쿤스트할레 티롤,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
- 2009 아트 베를린 컨템포러리, 베를린
 A.G.C.T., 프로젠트갤러리 함부르크, 함부르크, 독일
 델포이에서 잃어버린 고리,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 2008 골디락스 존, 스프루스 마거스, 베를린
 90가지 요소에 대하여 / 정글에서의 죽음, 캠든 아트 센터, 런던; 무담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 2007 90가지 요소에 대하여 / 정글에서의 죽음,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폴로, 싱켈 파빌리온, 베를린
- 2006 로우 스위트#오메가 하우스, 프로젠트갤러리 함부르크, 함부르크, 독일
 인구 많은 계곡 너머로 보기,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카사 아말리아 인덱스, 스프루스 마거스, 쾰른, 독일

Hakgojae

Cheongda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1, B1 (청담동 109-20)

B1, 41, Dosan-daero 89-gil, Gangnam-gu, Seoul, 06012,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 2005 테이블, 바다, 그리고 예시 (티노 세갈과 함께),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 전시관, 베니스, 이탈리아
빈터투어 베니스를 반기다. 컬렉션 작품으로부터, 빈터투어 미술관, 빈터투어, 스위스
- 2004 빵과 게임,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포티스 달로이아 & 가브리엘, 상파울루, 브라질
ABC - I II III, 제네바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제네바, 스위스
- 2003 다 이 아 몬 드 페 이 퍼 간행본: 토마스 샤이비츠, 디그 베를린, 베를린
토마스 샤이비츠가 선택한 일곱 가지 현대 직책 (토마스 샤이비츠 기획), 코흐 앤 케슬러우 갤러리, 베를린
- 2002 비너스 - 한니발이 문 앞에 다다랐다, 프로젠트 갤러리 함부르크, 함부르크, 독일
마우스 아페티트 디셈버,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1- 기하학 B, 아트페이스, 샌안토니오, 미국
- 2001 워스 온 페이퍼 Inc., 로스앤젤레스, 미국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매트릭스 195: 토마스 샤이비츠 1-기하학 B, BAMPFA, 샌프란시스코, 미국
베니스터 다이아몬드,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틀레도의 전망과 계획, 빈터투어 미술관, 빈터투어, 스위스
틀레도의 전망과 계획, 라이프치히 조형예술박물관, 라이프치히, 독일
- 2000 대리, 레만 갤러리, 드레스덴, 독일
- 1999 로우 스위티, ICA, 런던
파이널 골드,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 1998 보넥더 장쿠 갤러리, 뉴욕
더블, 루프 라움 퓨어 악투엘르 쿤스트, 베를린
- 1997 디지털린, 레만 갤러리, 드레스덴, 독일

주요 단체전

- 2019 하이퍼! 예술과 음악 속으로 가는 여정, 다이치토르할렌, 함부르크, 독일
- 2018 나는 균열이다, 벽을 통과하고 싶다, 잠룡 피터스-메세르 앤 미에티넨 컬렉션, 살론 달만, 베를린
회화 이후의 회화 이후의 회화 이후의: 현대 독일의 이미지 메이킹, 광둥예술박물관, 광저우, 중국
내재된 구조, 웨스너 시각예술센터, 콜럼버스, 미국
5 x 베를린, 보어스-리갤러리, 베이징
- 2017 파블로 피카소에서 로버트 라우센버그까지, 캄니츠 미술관, 캄니츠, 독일
추상회화의 현재!, 쿤스트할레 크렘스, 크렘스 안 데어 도나우, 오스트리아
머더미 컬렉션 대표작,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런던
나는 나의 광고 타깃이 아니다, 쿤스트 하우스 드레스덴, 드레스덴, 독일
창백한 정신. 정오, 렌바흐 미술관, 뮌헨, 독일
- 2016 익사이트먼트 - 루디 퍼흐의 전시,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나의 추상 세계, 미 컬렉터스 룸 베를린/올브리히트 재단, 베를린
현재, 노이게리엠슈나이더, 베를린
영화로서의 회화, 쿤스트할레 다름슈타트, 다름슈타트, 독일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 친화력: 1960년대 후반부터의 독일 예술, 라트비아 국립미술관, 리가
 상설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라이프치히 조형예술박물관, 라이프치히, 독일;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술관,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 2015 PIN의 50년. 피나코텍 국제현대미술관의 후원자들, 국립 그래픽 컬렉션, 뮌헨, 독일
 여기는 어디인가? #2: 공간과 현재, 쿤스트페어라인 로이틀링겐, 로이틀링겐, 독일
 시대정신 - 새로운 베를린의 예술, 브라질 은행 문화 센터,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음악 속 예술, ACT 아트 컬렉션의 작품, 베젤부르크 현대미술관, 브레멘, 독일
 피카소 이후: 80인의 동시대 작가, 웨스너 시각예술센터, 콜럼버스, 미국
 현대미술 속 피카소, 다이치토르할렌, 함부르크, 독일
- 2014 러브스토리 - 안네 앤 볼프강 티체 컬렉션, 하우스 21, 비엔나
 아름다운 풍경 - 미에티넨 컬렉션 작품, 살론 달만, 베를린
 고든 마타-클라크와 그를 넘어: 공간 개입, 살론 달만, 베를린
 근원: 예술가들 사이의 대화 및 토론, 파라 & 로메로, 이비사, 스페인
 열정의 열매, 풍피두 센터 컬렉션, 효고 현립 미술관, 고베, 일본
- 2013 깨닫기 위해 - 바우하우스부터 오늘날의 미술과 텍스타일, 빌레펠트 쿤스트할레, 빌레펠트, 독일
 로컬라이제이션. 작센 주의 현대 미술,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드레스덴, 독일
 네온 - 예술의 빛으로부터, 콘크리트 아트 뮤지엄, 잉골슈타트, 독일
 현실에 첫발을 들이다,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잭퀸킹에이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베를린
 우주에서 온 광범위한 생각들, 크로바트 갤러리, 비엔나
 유토피아, 갤러리 유토피아 베를린
 사일런트, 에이블스카를 갤러리, 코펜하겐
 정신과 형식 - 베를린에서 온 10명의 화가, 그룬드월드 아트갤러리,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 인디애나, 미국
 이중 사진, 졸로투른 시립미술관, 졸로투른, 스위스
 새로운 관점: 현대미술, 세인트루이스 미술관, 세인트루이스, 미국
 이전에 곁에 있던, 이후에 주변에 있는, 현재의 것들, 파라 & 로메로, 이비사, 스페인
 새로운 렌바흐하우스, 렌바흐하우스 미술관, 뮌헨, 독일
 모델 연구: 토마스 데만트와 페르낭 레제, 프란시스 브뤼지에르, 토마스 샤이비츠 및 브후테마스
 학교, 그레이엄 파운데이션, 시카고, 미국
 윌리엄 S. 버로스 - 회고전, 팔켄베르크 컬렉션/ 함부르크 다이치토르할렌, 함부르크, 독일
 서가의 전설, 아우토센터, 베를린
 지금. 여기. 현대 미술. 예술 기금 후원,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드레스덴, 독일
 작센 - 도이치방크 컬렉션. 라이프치히 조형예술박물관, 라이프치히, 독일
- 2012 썩스러워 하지 마, 망설이지도 마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로간 컬렉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기하학과 제스처 - 현대 회화와 조각, 현대 회화와 조각, 피나코텍 국제현대미술관, 뮌헨, 독일
 열정의 열매, 풍피두 센터, 파리
 보로스 컬렉션 / 벙커 #2, 보로스 컬렉션, 베를린
 에덴동산, 팔레 드 도쿄, 파리
 호기심의 방, 아우토센터, 베를린
 컬렉션. 키퍼에서 헤닝으로 이어지는 독일 미술, 보이만스 반 뵘닝겐 미술관, 로테르담, 네덜란드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 패션 - 행크 컬렉션,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공통된 기반, 제13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이름은 버로스입니다,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기술 센터, 카를스루에, 독일
 추상적 혼동, 에어푸르트 미술관, 에어푸르트, 독일
 현황 발표 - 새로운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본 미술관, 본, 독일
 추상적 혼동, 뉴 갤러리 글라트베크, 글라트베크, 독일
 2011 추상적 혼동, 쿤스트페어라인 울름, 울름, 독일
 아우토센터의 10년, 아우토센터, 베를린
 연필 분야 작업, 반 호른, 뒤셀도르프, 독일
 측량사,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버펄로, 미국
 포트폴리오 베를린 1, 로스토크 쿤스트할레, 로스토크, 독일
 할렐루와! - 캔을 위한 추모, ABT아트, 슈투트가르트, 독일;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추상///조각, 게오르그-콜베 박물관, 베를린
 추상적 혼동, b05 / 쿤스트-쿨투어-나투어, 몬타바우어, 독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약속한다, 쿤스탈 로테르담, 로테르담, 네덜란드
 친화력 III, 바이마르 신박물관, 바이마르, 독일
 2010 움직이는 플랜 B - 챕터 원 (토마스 샤이비츠 기획), 더 드로잉 룸, 런던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 동시대 독일 회화, 상파울루 미술관, 상파울루, 브라질
 다양한 즐거움: 현대미술 속 기능적 오브제,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낭만주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예술,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알베르티눔, 드레스덴, 독일
 높은 이상, 말도 안 되는 꿈, 갤러리 베라 문로, 함부르크, 독일
 밤이 가장 깊어졌을 무렵, 벨 에타주, 베를린
 하르테 게플레, 실버슈드, 뉴욕
 15x1 \ 45+15 명화 // 1945 이후의 드로잉,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드레스덴, 독일
 모두 케를바흐에 맞서, 잔더카슈터 갤러리, 드레스덴, 독일
 궁금한가? 개인 컬렉션으로 본 21 세기 미술, 독일연방공화국 국립현대미술관, 본, 독일
 2009 토마스, 문츠살롱, 베를린
 쉬카리아-하이-소아이어티, BDA-아우스텔롱즈라움,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카고, 아우토센터, 베를린
 모더니즘 명화: 빈터투어 미술관 컬렉션, 트렌토&로베레토 현대미술관, 로베레토, 이탈리아
 성좌들: MCA 컬렉션 회화, 시카고 현대미술관, 시카고, 미국
 카르트 블랑슈 VIII: 눈으로 들으라. 슈미트-드렌하우스 컬렉션의 작품, 현대미술관, 라이프치히, 독일
 월 로켓: 현대예술가들과 에드 루샤,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버펄로, 미국
 아틀란티스. 숨겨진 역사 - 새로운 정체성, 솔로스 마퀴트, 포츠담, 독일
 카고 마니페스트,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 바이에른 주립 가극장, 뮌헨, 독일
 결과 (파트 II), 친퀘 가르조니, 베니스, 이탈리아
 최면제 - 정부 청사 갤러리 / 포가튼 바 프로젝트, 베를린
 동굴 벽화, PSM 갤러리, 베를린
 지오플레이 (파트 II), 필러 파라 & 로메로, 마드리드
 회화는 항상 추상적이다, 글라스팔라스트 현대미술관,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모더니즘의 정점. 빈터투어 미술관, 분데쿤스트할레, 본, 독일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 선의 존재, 20세기와 21세기 신소장품, 피나코텍 국제현대미술관, 뮌헨, 독일
- 현대미술 소장품, 피나코텍 국제현대미술관, 뮌헨, 독일
- 프라이빗 - 지금의 부퍼탈 컬렉터, 폰 데어 호이트 미술관, 부퍼탈, 독일
- 베를린 2000, 페이스 웰던스타인 갤러리, 뉴욕
- 보이지 않는 도시들, 저우드 스페이스, 런던
- 2008 월 로켓: 현대예술가들과 에드 루샤, 플래그 아트 파운데이션, 뉴욕
- ICA 옥션 전시, ICA, 런던
- 성좌들, 아티시마, 토리노, 이탈리아
- 크랏초 클럽 / 들락날락, 포가튼 바 프로젝트, 베를린
- 프로젝트 스페이스 176, 런던
- 저장공간 부족 I - 컬렉션 회화, 무담 룩셈부르크-그랑 뒤 장 현대미술관, 룩셈부르크
- 부가적 문제, 괴니히 갤러리, 베를린
- 초자연, CCA 안드라츠, 마요르카섬, 스페인
- 2007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 아름다운 것은 단순할 수 있다, 컬린 갤러리, 더블린
- 멀티플렉스: 예술의 향방, 1970에서 지금까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 조각가의 드로잉, 아스펜 미술관, 아스펜, 미국
- 나는 움직일 때야만 볼 수 있다. 종이에 그려진 동시대 미술의 위치,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드레스덴, 독일
- 리-디스-플레이, 하이델베르크 쿤스트페어라인, 하이델베르크, 독일
- 관점 07, 렌바흐 미술관, 뮌헨, 독일
- 위반 / 과도, 스페이스-아더, 보스턴, 미국
- 형상으로 돌아가기, 패트리샤 로우 컨템포러리, 게슈타드, 스위스
- 원더월 - 송고함 구축하기,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 도쿄
- 10년의 조각 컬렉션, 쾰른, 독일
- 로커 아일랜드: 올브리히트 컬렉션 작품, 폴크방 미술관, 에센, 독일
- 친화력, 바이마르 신박물관, 바이마르, 독일
- 상상은 현실이 된다: 결론,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기술 센터, 카를스루에, 독일
- 레벨 2 갤러리: 아티스트 다이닝 룸, 테이트 모던, 런던
- 2006 리히터부터 샤이비츠까지: 1960년 컬렉션 이후 종이 위의 독일 작품, 빈터투어 미술관, 빈터투어, 스위스
- 사이트 9/1, 사이트 매거진/하우스 암 미아 프로덕션, 뒤셀도르프, 독일
- 레이더: 로건 컬렉션 선정, 덴버미술관, 덴버, 미국
- 새로운 베를린 건설, 피닉스 미술관, 피닉스, 미국
- 여담, 캠프 아트 센터, 런던
- 무한한 회화: 동시대 회화와 글로벌 리얼리즘, 빌라 마닌 현대미술센터, 코드로이포, 이탈리아
- 2005 36x27x10 (토마스 샤이비츠와 친구들 기획), 베를린 공화국궁, 베를린
- 어딤션, 가고시안 갤러리, 베를린
- 합계보다 큰: 크레이그 로빈스 동시대 미술 컬렉션으로부터, 플로리다 대학교 유니버시티 갤러리, 게인스빌, 미국
- 구성되다,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 현대로부터의 드로잉, 1975-2005,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 올브리히트 컬렉션의 양상, 베젤부르크 현대미술관, 브레멘, 독일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 2 막으로 이루어진 재정증명서, 하노버 쿤스트페어라인, 하노버, 독일
 괴츠가 팔켄베르크를 만나면, 팔켄베르크 컬렉션, 함부르크, 독일
 상상은 현실이 된다 1부: 다양해진 회화 도구들, 괴츠 컬렉션, 뮌헨, 독일
 스플릿, 디 어프로치 갤러리, 런던
 회화의 승리: 20주년 기념 전시회, 사치 갤러리, 런던
 드로잉스: A - Z, 콜레상 마데이라 코퍼레이트 서비스, 마데이라 제도, 포르투갈
- 2004 제 26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상파울루, 브라질
 별들은 아주 크고, 지구는 아주 작다... 이대로 있어라 (파트 I), 쉬퍼 & 크로메 갤러리, 베를린
 준비 과정 / 낯선 익숙함, 자를란트 미술관, 자르브뤼켄, 독일
 미술 동시대인, 1960년부터 오늘날까지, 풍피두 센터, 파리
- 2003 슈퍼노바, 로건 컬렉션의 1990년대 미술,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실버 컨벤션, 갤러리 기티 노우어바크슈, 베를린
 조각 위의 회화, 타냐 보넥더 갤러리, 뉴욕
 베를린 - 모스크바 / 모스크바 - 베를린 1950-2000,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베를린
 4ever Young, 조머 컨템퍼러리 아트, 텔아비브, 이스라엘
 카를 슈미트 로틀루프 장학금,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독일
 피투라/회화: 라우선버그에서 무라카미까지 1964-2003, 코레르 박물관, 베니스, 이탈리아
 마티스와 이후: 모더니즘의 백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렌더드, 사라 멀처 갤러리, 뉴욕
 아키텍처 슈마아키텍처, 컬린 갤러리, 더블린
 Z. F.를 위해, 프로젠트 갤러리 함부르크, 함부르크, 독일
- 2002 독일의 회화 이천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쿤스트페어라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회화 작업하기. 디지털 시대의 회화와 미디어,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볼프스부르크, 독일
 독일의 표현주의,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버펄로, 미국
 그룹 쇼, 퍼시픽 - 아트 스페이스, 베를린
 5년, 제니퍼 플레이 갤러리, 파리
 신소장품, 빈터투어 미술관, 빈터투어, 스위스
 작가들이 상상한 건축, ICA, 보스턴, 미국
 사운즈, G7, 베를린
- 2001 종이 위의 새로운 작품, 컬린 갤러리, 더블린
 피에몬테 지역 프리미어, 산드레토 레 레바우덴고 재단, 토리노, 이탈리아
 굿 라이프, 레만 갤러리, 드레스덴, 독일
 프리뷰, 워스 온 페이퍼 Inc., 로스앤젤레스, 미국
 베를린 - 런던 01, ICA, 런던
 샘플 카드 - 회화의 모델, 회화에서 콘데 두케 문화 센터 콘데 두케, 마드리드
 엘바 베니테스 갤러리, 마드리드
 F., 포르첸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 2000 세상의 끝에서 그림 그리기, 워커아트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에버하르트 하베코스트, 프랑크 니체, 토마스 샤이비츠, 화이트 큐브 2, 런던
 영향력의 시대: 미국 문화의 거울 속 이미지, 시카고 현대미술관, 시카고, 미국
 00 드로잉들, 바바라 글래드스톤 갤러리, 뉴욕
 진정한 놀라움, 라인란트 컬렉터들 & 컬렉션, 조세프-하우브리히-쿤스트할레, 쾰른, 독일

Hakgojae

Cheongda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1, B1 (청담동 109-20)

B1, 41, Dosan-daero 89-gil, Gangnam-gu, Seoul, 06012,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 컬렉터스 초이스, 엑시트 아트, 뉴욕
- 1999 눈높이, 노이에 베를리너 쿤스트페어라인, 베를린
회화 조사하기, 화이트채플 아트 갤러리, 런던; 시카고 현대미술관, 시카고, 미국;
해머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드로잉들, 보넥더 장쿠 갤러리, 뉴욕
- 1998 보다 보다 - 베를린 '98, 루프 - 라움 푸어 악투엘르 쿤스트, 베를린
새로운 퍼포먼스 회화, 쿤스트라움 호텔, 취리히, 스위스

수상 및 기금

- 2003 칼 슈미트-로틀러프 장학금
- 1998 헤겐바스 장학금, 프로젝트 타이쿤-토키오
- 1995 도이첸 포크스 스튜디오엔슈티프팅 장학금

소장

버클리 미술관, 버클리, 미국
해머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알폰드 컨템포러리 아트 컬렉션, 윈터파크, 미국
ACT 아트 컬렉션, 브레멘, 독일
카네기 미술관, 피츠버그, 미국
퐁피두 센터, 파리
콜레치오네 마라모티, 레지오 에밀리아, 이탈리아
도이치 방크 컬렉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도이치 텔레콤 컬렉션, 본, 독일
샌프란시스코 파인 아트 뮤지엄, 샌프란시스코, 미국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키코 컬렉션, 렌바흐 하우스 미술관, 뮌헨, 독일
본 미술관, 본, 독일
캠니츠 미술관, 캠니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뒤셀도르프, 독일
빈터투어 미술관, 빈터투어, 스위스
쿠퍼슈티카비넷 베를린, 베를린
무담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컨템포러리 아트 박물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시카고 현대미술관, 시카고,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머더미 컬렉션, 런던

Hakgojae

Cheongda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1, B1 (청담동 109-20)

B1, 41, Dosan-daero 89-gil, Gangnam-gu, Seoul, 06012,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국립미술관, 온타리오, 캐나다

올브리히트 컬렉션, 베를린

피나코텍 국제현대미술관, 뮌헨, 독일

보로스 컬렉션, 베를린

괴츠 컬렉션, 뮌헨, 독일

스토펠 컬렉션, 쾰른, 독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국립 그래픽 컬렉션 뮌헨, 뮌헨, 독일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드레스덴, 독일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테이트 모던, 런던